

車업계, 원자재 지속가능성 주목... 친환경 체질개선 속도낸다

EU 등 글로벌 환경규제 적극 대응
친환경성 강화로 미래시장 선점
일반부품에 비해 비용부담 증가

해마다 강화되는 환경 규제에 맞춰
글로벌 완성차 업계가 체질개선에 속도를
높이고 있다.

현재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
년 2억톤 이상 배출되고 있으며 배출량
도 매년 10% 이상 증가하고 있다. 이 중
90% 이상이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어
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손실에 직
접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. EU를
포함한 주요국들의 폐기물 관련 규제도
강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의 리스크도
증가하고 있다.

8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적
인 자원순환 관련 규제에 맞춰 친환경 제
품 사용률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. 또 지
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미래 환경을 조
성하는 데 앞장서 글로벌 톱티어 모빌리
티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구상이
다. 특히 현대차와 기아, BMW그룹, 메
르세데스-벤츠 등은 글로벌 시장 경쟁
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
환경 부품 사용률을 높이고 있다. 다만
업계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



현대차 아이오닉 5.



메르세데스-벤츠 전기 세단 EQS

소재 사용 확대 따른 제품 가격 인상은
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기아는 '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'
를 통해 자원순환 관련 규제 강화에 대
비해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률을 2030년
까지 20%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밝혔
다. 2%에 불과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
10배에 달하는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
한 것이다. 목표 실현을 위해 플라스틱
재활용 소재 확대적용 TFT 운영, 폐차
네트워크 시범사업 운영을 통한 폐차
부품 플라스틱 회수 등 관련 기술 연구
개발과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.

현대차도 재활용이 가능한 소재 적용
을 늘리고 플라스틱과 유리 등 폐기단
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운 비금속소재를

바이오 소재 등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
며 친환경성을 강화하고 있다.

재활용 플라스틱 소재 외에도 사탕수
수과 목재에서 추출한 원료로 바이오 플
라스틱, 야자열매 씨앗 추출물을 활용한
친환경 페인트, 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
바이오 폴리올을 적용한 친환경 인조가
죽 등 친환경 소재도 개발 중이다.

친환경 소재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
이를 적용한 신차도 늘고 있다. 현대차
는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원사와 재활용
패트 가공 원사를 순수 전기차 '아이오
닉 5'의 도어 트림, 시트에 적용한 데 이
어 '아이오닉 6', 'GV60', 'GV70 전동
화 모델', 'G80 전동화 모델'의 헤드라
이닝과 필라트림, 선바이저, 패키징트

레이 등에 적용했다.

메르세데스-벤츠는 '환경을 위한 설
계'라는 목표를 세우고 지속 가능하면
서도 럭셔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유
지할 수 있는 신소재 발굴에도 힘쓰고
있다. 재활용 소재의 비중을 대폭 늘리
고, 자연 친화적인 신소재를 연구하는
것뿐만 아니라 제품 개발에 뜻을 함께하
는 기업들을 발굴해 실제 양산차에 적용
하고 있다. 또 2030년까지 재활용 원료
적용 비율을 평균 40%까지 끌어올린
다는 계획이다. 특히 벤츠는 전기 세단 E
QS에 탑재된 부품들 중 80 kg 이상이
재활용 또는 재생가능한 원료 등의 지원
절약 소재를 기반으로 제작했다. 뿐만
아니라 메르세데스-벤츠는 'EQE SU

V', '메르세데스-마이바흐 EQS SUV'
와 11세대 '더 뉴 E-클래스'에도 40%
이상을 지속 가능한 소재를 활용했다.

BMW그룹은 친환경 소재를 빠르게
확대해 나갈 방침이다. BMW그룹은
2025년 출시 예정인 노이어 클라세 제
품에 어망 등의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
해 만든 플라스틱 부품을 적용한다. B
MW그룹은 30%에 달하는 부품에 재활
용 플라스틱 부품을 적용할 예정이다.
BMW그룹은 2024년부터 BMW와 MI
NI의 모든 차량에 100% 친환경 에너지
로 생산한 알루미늄 휠을 사용하고 있
다. 현재 BMW 그룹이 사용하고 있는
열가소성 플라스틱의 2차 원자재 비중
은 평균 20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오는
2030년까지 이를 40%까지 확대하는 것
을 목표로 하고 있다.

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"플라스틱 폐
기물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면서
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주요 원자재의
지속가능성에 집중하고 있다"며 "순환
체계를 구축해 부품의 재자원화될 수
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"고 말했
다. 이어 "다만 아직 재활용이 가능한 원
자재의 경우 일반 부품에 비해 비용 부
담이 크다는 부담이 있다"고 덧붙였다.

/양성운 기자 ysw@metroseoul.co.kr

창작자 진입장벽 낮추고 영화·드라마 무한확장

K-웹툰 글로벌성장 비결은

네이버웹툰 150여 개국 진출
웹툰엔터 美 나스닥 시장 입성

네이버웹툰이 한국 콘텐츠 기업 최
초로 미국 나스닥 시장에 입성하면서
지난 20년간 성장 가도에 이목이 쏠리
고 있다. 네이버웹툰은 위에서 아래로
읽는 세로 스크롤 형식인 '웹툰(Webto
on)'을 전세계화 시킨 '웹툰의 기원지'
다. 웹툰은 웹(Web)과 카툰(Cartoon,
만화)의 합성어로, 온라인 만화 콘텐츠
를 뜻한다. 2005년 서비스 시작 이래 네
이버웹툰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진출
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자리
잡았다.

8일 <메트로경제>의 취재에 따르면
네이버웹툰의 성공은 웹툰의 진입 장벽
을 낮춰 다양한 창작자를 유입시키고
웹툰을 다양한 장르로 뻗어간 것이
주요했던 것으로 풀이된다.

네이버가 공개한 지난 1분기 실적
발표에 따르면, 네이버웹툰은 올해 3
월 기준 전세계월간활성이용자수(M
AU)가 1억 7000만 명을 기록했다. 연
간 매출은 지난해 12억 8270만 달러(약
1조 7800억 원)를 기록했으며, 전년 대
비 18.84% 상승한 수치다. 특히 일본
에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작년 8월부
터 올 1월까지 MAU 1위를 차지하며,
11개월 만에 연간 거래액이 1000억엔
(약 8800억 원)을 돌파했다. 2016년 미
국에 웹툰 비즈니스를 총괄하는 웹툰
엔터테인먼트(이하 웹툰엔터)를 설립
하고 꾸준히 해외 진출을 도모한 결과
다. 웹툰엔터는 ▲네이버웹툰(한국)



김준구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 겸 창업자와 창작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. 왼쪽부터
셴(Shen), 손재호, 애나 토드, 김준구 대표, 잉그리드 오초아, 김규삼, 조석 /웹툰엔터테인먼트

▲라인웹툰(동남아) ▲웹툰(북미·중남
미·유럽) ▲라인망가(일본) 등 다양한
플랫폼을 통해 150여 개국 이상에서
운영되고 있다.

네이버웹툰이 급성장한 데에는 김준
구 웹툰엔터 및 네이버웹툰 대표의 선
구안이 꼽힌다. 김 대표는 27살의 나이
로 네이버 개발자로 입사해 지금의 네
이버웹툰을 설계한 인물로, 만화광으로
유명하다. 2005년 5명의 직원으로 시작
한 네이버웹툰을 그만의 성공방정식으
로 나스닥 상장까지 이뤄냈다.

김 대표의 도전은 네이버 김상현 대표
이사의 전폭적인 지지에서 비롯됐다. 김
대표이사는 만화광인 김 대표를 알아보
고, 평사원인 그를 네이버웹툰 계열사 대
표로 과격적 임명을 단행했다. 이에 힘입
어 김 대표는 ▲작가 발굴 및 육성 ▲작
가 보상 시스템 ▲요일제 게시 정책 등을
통해 웹툰 산업을 활성화했다.

네이버웹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
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요인은 웹툰 콘텐
츠의 '확장성'이다. 네이버는 웹툰을 드
라마나 영화로 재탄생시키며 큰 성공을

거두었다.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
'신과 함께' 시리즈, JTBC 드라마 재벌
집 막내아들' 등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
됐다.

이러한 지식재산권(IP)의 확장은 드
라마나 영화뿐 아니라 OTT 시장까지
정조준하며 글로벌 팬들을 사로잡았
다. 넷플릭스 '살인자ㅇ난감', '마스크
걸', 'D.P', 디즈니플러스 '무빙' 등 모
두 웹툰이 원작이다. 이처럼 네이버는
웹툰의 IP 확장에 초점을 두고 하나의
IP를 다른 장르에 접목하는 '원 스토리
멀티 유즈(one source multi-use)' 콘
텐츠 사업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.

한편, 웹툰엔터는 지난 27일(현지시
간) 뉴욕 증시에 상장해 상장 첫날 공모
가보다 9.5% 높은 23달러에 거래를 마
쳤다. 첫 거래일 증가 기준 시가총액은
약 29억 달러(약 4조 원)에 달한다.

네이버웹툰은 이번 나스닥 상장을
통해 확보한 4400억 달러의 투자금을
양질의 콘텐츠 확보와 IP 사업 확장, 기
술 혁신 등에 투자할 예정이다.

/이혜민 수습기자 hyem@

산업부, '수출성장 플래닛' 발대식 42개 중소·중견기업 수출 전과정 지원

실적별 성장 사다리 프로그램 신설

정부가 수출 잠재력은 높은 중소·중
견기업을 선정해 수출 실적 단계별로
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 사다리 프
로그램을 신설해 최장 15년간 수출 전과
정을 파격 지원한다.

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오전 서울 웨
스틴조선호텔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
부장이 참석한 가운데, 무역보험공사
주최로 '수출성장 플래닛(Plan it)' 발
대식을 개최, 지원 대상 42개사를 선정
했다고 밝혔다.

이날 발대식에는 장영진 무보 사장,
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, 정윤모
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, 중소·중견 대
표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.

수출성장 플래닛은 수출 잠재력이 높
은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실
적 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성장
사다리 프로그램이다. 수출성장 플래닛
공모에는 총 410개사가 신청했고, 서류
심사와 심층심사로 최종 지원 대상을
선정했다.

무보는 현재 내수 중심 기업이지만 앞
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 잠재력이 큰 유
망 중소·중견기업을 기존 수출실적과 신
용등급에 따라 '이머징스타(수출 100만
달러이하)', '라이징스타(100만~3000만
달러)', '사이닝스타(3000만달러 초과)
' 등 3단계로 나눠 맞춤형으로 지원한다.

기업별 지원기간은 최대 5년(기본 3
년, 2년 연장)이고, 지원기간 종료시점
에 상위그룹 조건 달성시 자동 승격된
다. 이머징스타 그룹에서 최초 선정 후
라이징스타, 사이닝스타 그룹으로 승격
시 최장 15년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


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
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수출성장
플래닛 발대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.

/산업통상자원부

올해는 일반기계, 자동차부품 등 주
력 품목뿐 아니라, K푸드, K뷰티, 방산
등 다양한 분야의 총 42개 기업이 선정
됐다.

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△기업당 최대
100억원의 제작자금 특별보증 △수출
보험·보증료 최대 90% 할인 △보험책
정 한도 2배 상향 △수입업자 신용조사
등을 계약·제작·선적·수출대금 회수
등 수출 전 주기에 걸쳐 특별무역금융
을 제공한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"수출 우
상향 모멘텀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
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·중견기업의 역
할도 매우 중요하다"며 "정부는 금융,
마케팅, 물류 등 모든 가용역량을 집중
해 중소·중견기업 수출 확대를 지원하
겠다"고 강조했다.

장영진 무보 사장은 "금번 수출성장
플래닛은 이전에 없던 혁신적인 무역보
험 프로그램으로서, 지원 대상기업을
향후 3년간 100개사로 확대해 나갈 계
획"이라고 밝혔다. /세종=한용수 기자 hys@